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2018.4.3.(화)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감독제도팀장 이 동 엽(02-2100-2591)	<b>담 당 자</b>	이 영 평 사무관 (02-2100-2592) 김 동 현 사무관 (02-2100-2593)	

## < 보도 참고 >

- ☐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에 대한 평가, 통합감독제도상 자본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업계 의견수렴 및 규제영향평가 등을 거쳐 '18년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며,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제 목 : 내일신문 4.3일자 "[금융그룹 통합 감독 초안 따르면] 삼성생명 필요자본 최대 21조 추산" 및 서울경제 4.3일자 "전자 지분 8.23% 보유 삼성생명, 최대 21조 추가 부담 가능성" 제하 기사 관련
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날게 들겠습니다  
바르게 알려겠습니다

## < 기사 내용 >

- ☐ 내일신문은 4.3일자 "[금융그룹 통합 감독 초안 따르면] 삼성생명 필요자본 최대 21조 추산" 제하의 기사에서
- "금융당국이 예를 든 평가방식은 '개별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15% 초과분'과 '전체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60% 초과분' 중 큰 금액을 전액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것이다",
  - "삼성생명의 필요자본 가산액은 삼성전자 26조원 중 4조 6500억원의 초과분인 21조 3500억원이다"라고 보도
- ☐ 서울경제는 4.3일자 "전자 지분 8.23% 보유 삼성생명, 최대 21조 추가 부담 가능성" 제하의 기사에서
- "삼성생명 자본의 15%는 약 4조 7,000억원이므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출자분(25조 6,000억원)에서 4조 7,000억원의 초과분에 해당하는 20조 9,000억원을 필요자본으로 쌓거나 이에 상응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"라고 보도